

ISO/TC184/SC4 (산업 데이터)

자동화부품과 공업연구원 오유천

(02) 509-7353, youchon@ats.go.kr

□ 개요

- 회의기간 : 2002. 06. 09~06. 14
- 회의장소 : 스웨덴 스톡홀름
- 출장목적
 - 200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ISO/TC184/SC4 (산업 데이터) 제3차 총회에 대한 홍보 및 회의 진행 방법 숙지
 - 산업자동화분야 (ISO/TC184/SC4) 국제표준화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
 - STEP-NC, 조선 파라메트릭스 분야 등에서의 국제 표준 제안 활동의 지원
 -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
- 참석자 : 기술표준원 자동화부품과 김세진 과장 등 13명

□ 주요 활동 내용

- 파라메트릭 분야
 - 파라메트릭스 그룹은 WG11 소속으로 영국의 Mike Pratt 박사가 팀장
 - STEP은 현재 파트 42나 AP 203을 통해 형상

정보를 교환하면 경계표현 (B-rep: boundary representation)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, 교환 후에 파라메트릭 변환이 불가능해 진다.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이 파라메트릭 그룹에서 진행

- 한국의 KAIST 한순홍 교수와 부품디비가 공동으로 표준 모델링 명령어 집합 (Standard modeling commands set for macro parametric) 추진중. 11월 서울회의에 NWI 제출 예정
- Manufacturing 분야
 - 우리가 제안한 선반 모델 (Turning data model) CD안에 대한 검토의견 수렴.
- 조선분야
 - 해양연구원은 조선용 AP의 구현과 검증을 위한 가이드를 위한 ATS318 등을 주도하고 있음.
 - ATS318을 미국 등의 자료를 받아 다음 회의까지 완성기로 함.
- 건설분야
 - 건설기술연구원과 경희대학교는 KOSDIC (Korea Standard of Drawing Information in Construction) 표준으로, 일본의 SCADEC과 독일의

CDS와 함께, 건설도면의 저장과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 제정에 활동 중.

● 서울회의 홍보

- 서울회의 개요
- 개최일자 : 2002년 11월 3일(일)- 11월 8일(금)
- 개최장소 : COEX 컨퍼런스 센터
- 개최식(Opening Plenary)에서 11월의 한국 회의를 소개
- 회의장 자료 테이블에서 서울회의를 소개하는 안내문, 한국 홍보 브로셔, KATS 홍보 브로셔 등을 배포
- SC4 총회 각국 대표들에게 홍보 CD, 한국 홍보 브로셔, KATS 홍보 브로셔 등을 전달

□ 회의 결과

- 한국 대표단은 13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였고, 주로 참석한 분야는 조선, 건설, STEP-NC, 파라메트릭으로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파라메트릭 분야의 NWI 제안을 위한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음.
- 서울회의 준비
 - 홍보 CD, 브로셔 등을 이용 11월 서울회의에 많이 참석토록 요청.
 - ISC(International STEP Center) 공개 워크샵 개최를 제안하여 11월 서울 회의에서 한국 기업체 전문가들을 위해 국제적인 STEP 구현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함.
 - 조선분야에서는 조선소 방문 (Field Tour) 협의
- 한 일 중의 산업데이터 표준(STEP) 기술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류위원회를 제안하였고, 상호

정보 교환에 합의함.

- 중국측 대표
 - CNIS (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)
 - Wang Ping (Vice Chief)
- 일본측 대표
 - ECom (Electronic Commerce Protection Council of Japan)
 - Yoshitaka Terakado (Research Director)
- 주요 안건
 - 국제규격 채택을 위한 사전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
 - 제품모델 교환 테스트
 - 국제 표준에서 아시아권의 의견 반영 확대 (예를 들어 표준에서 아시아 문자의 표기 등)
- 앞으로 국내의 제품모델표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하며, 특히 기업체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판단됨.

※ SIS 및 스톡홀름 무역관 방문

- SIS (Swedish Standard Institute) 책임자 Lars Flink (Managing Director)로부터 브리핑.
 - 전체직원은 160명이고, 정부지원은 10%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출판, 교육, 컨설팅, 프로젝트 수행으로 예산 확보 (약2,000만불)
 - SIS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SIS Forum과 출판을 담당하는 SIS Forlag이라는 하부조직이 있음.
- 무역관을 방문하여 손병만 관장 등과 스웨덴 경제 동향에 대한 얘기를 나눔.
- 스웨덴이 정보통신,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수준의 자동화 기술력이 요인임. ♣